



미 증시, 델타 변이 부담 속 차익실현 압력 확대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9 일(목) 미국 3 대 증시는 장 초반 주간 실업지표 호조,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강세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제 회복 지연 우려, 지수 레벨 부담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로 하락 마감(다우 -0.4%, S&P500 -0.5%, 나스닥 -0.3%). 업종별로는 금융(+0.3%), 에너지(+0.1%), 소재(+0.1%) 등이 강세, 부동산(-2.1%), 헬스케어(-1.2%), 경기소비재(-0.6%)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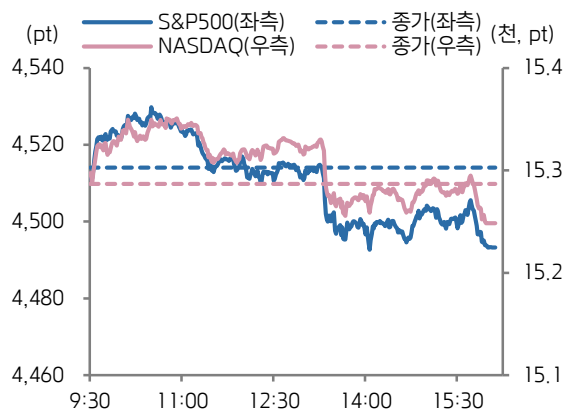
ECB는 9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1 조 8,500 억유로)는 2022년 3월까지 유지할 것이며, 직전 두개 분기에 비해 완만한 속도로 진행하기로 결정. 2021년 성장률 전망치는 4.6%에서 5.0%로 상향했으며,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1.9%에서 2.2%로 상향조정. 라가르드 ECB 총재는 테이퍼링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PEPP 재조정 성격이며 12월 회의에서 PEPP의 미래를 토론할 것이라고 언급. 테이퍼링 종료나 금리인상은 아직 멀었다고 강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최근 상승세가 일시적이며 병목현상은 2022년초에 완화될 것으로 전망.

미국의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31.0 만건으로 전주(34.5 만건) 및 예상치(33.5 만건)를 모두 하회하면서 2020년 3월 팬데믹 발생 이후 최저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모습.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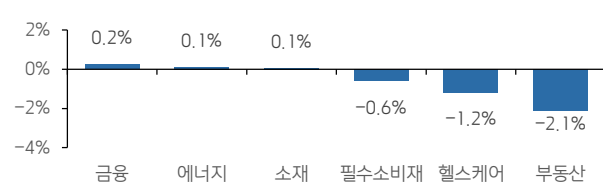
한때 16만명(7일 이동평균 기준)을 상회했던 미국 신규 확진자수(전일 15.8만명)는 피크아웃한 것으로 보이며, 주간 실업지표 호조세는 것처럼 미국 고용시장도 델타 변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 그러나 “약 16만명대의 확진자는 통계가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파우치 소장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다만 이 같은 델타 변이 확산 여파는 중앙은행들의 정책 정상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중립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 ECB가 PEPP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면서도, 테이퍼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배경도 동일한 맥락. 결론적으로 미국 고용시장 회복세 추세는 유효하고 ECB 회의도 양호하게 소화했으나, 여전히 9월 FOMC에서의 테이퍼링 공식화 여부를 둘러싼 경계심리가 상존하는 만큼, 당분간 미국 증시가 방향성 탐색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

S&P500&NASDAQ 일중 차트(9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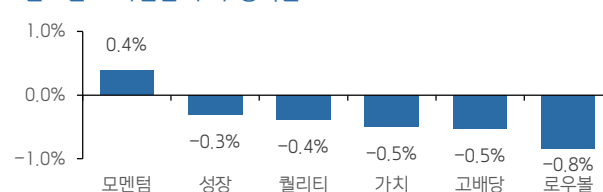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9월 9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9월 9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8%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1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2거래일 연속 급락한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 반등 여부 2. 전거래일 1.5%대 급락한 코스피에서의 기술적 매수세 유입 가능성 3. 장중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의 변화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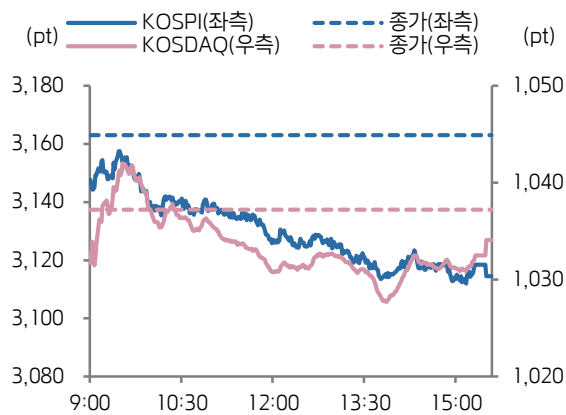
9 일(목) 코스피는 연준 베이지북에서의 경기판단 하향,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매크로 상 부담요인이 재차 부각된 가운데, NAVER(-2.6%), 카카오(-7.2%) 등 플랫폼 주도주들의 규제 리스크 불안에 따른 추가 급락,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수급 요인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1% 넘는 하락세로 마감(코스피 -1.6%, 코스닥 -0.3%).

업종별로는 통신(+0.3%), 섬유의복(+0.1%)를 제외한 서비스(-2.9%), 기계(-2.4%), 철강금속(-1.8%), 운수장비(-1.7%) 등 전업종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177 억원, 9,349 억원 순매도, 개인이 1 조 2,068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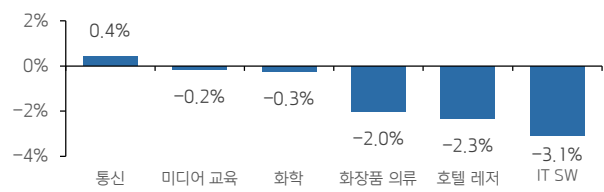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전거래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및 저점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델타 변이 확산 경계심이 상존하는 만큼 반등 탄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지난 2 거래일 동안 NAVER,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주들의 주가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도체, 2차전지 포함 국내 주요 대형 주도주들이 순차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한국 증시의 약세장 진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물론 단기간은 대형 플랫폼 주도주들이 급락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 그러나 잭슨홀 미팅을 통해 연준의 점진적 정책 정상화 가능성 확보, 국내 2 분기 실적 시즌에서의 피크아웃 우려 소화 및 수출 호조세 지속 등을 감안 시 약세장 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9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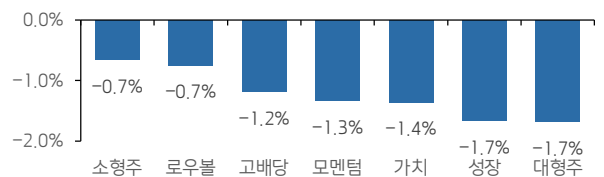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9월 9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9월 9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